

# 오네시모 소식지

(오네시모 선교회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골 3:23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Colossians 3:23



2024 년

3

월호

---

## 목차 Table of Contents

---

인사말 ~~~~~	2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라 (최준성 목사) ~~~~~	4
<i>Go where I lead (Pastor John Choi) ~~~~~</i>	7
방문을 마치고 (최준성 목사) ~~~~~	9
<i>Prison visiting (Pastor John Choi) ~~~~~</i>	12
인터넷에서 퍼온 글 ~~~~~	14
<i>Testimony (Dwight - Onesimus School of Theology Student) ~~~~</i>	17
신앙상고(信仰詳考 Shin. B. H.) ~~~~~	19
기도 제목 ~~~~~	22

## 인사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엡 1:2)

새해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마음이 들지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올 해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더 의지하고, 나의 매일 생활로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고, 그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가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당한 세월을 미국에 살다 보니 영어는 더 늘지 않고, 한국말도 사용하는 어휘도 점 점 줄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안에서만큼 사용되는 언어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은 각자 자기가 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스페니쉬, 그리고 중국어, 한글 등등..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도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듣고도 그 사람이 어디서 이민을 온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救主, SAVIOR) 임을 가슴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세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마다 살아 가는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 살아가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곳이 다를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도,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것은 입술로 주님께 올리는 노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하루를 채워 나가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시간들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매일 채워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시고 아름다운 일들로 채우시는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오네시모 선교회 문을 노크 하세요, 선교회 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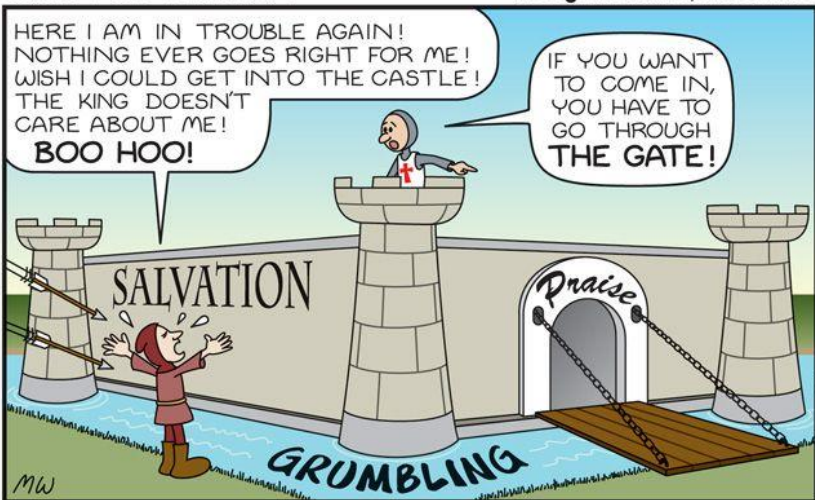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 가도록 정성껏 도와 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이 글을 읽는 재소자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최준성목사

알려 드립니다- 지난 오네시모 소식지 (news Letter -12/2023)  
20 페이지에 실린”재소자 형제들에게 부탁하는글”(사이먼 심)중에  
언급된 “치노 교도소의 잠수학교 교육과정”은 현재 폐쇄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GATE OF PRAISE

A Joyful 'toon by Mike Waters



No longer will violence be heard in your land, nor ruin or  
destruction within your borders, but you will call your walls  
Salvation and your gates Praise.  
- ISAIAH 60:18 NIV

www.joyfultoons.com © 2013 Michael D. Waters

##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새번역 창 12:1,2)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새해에도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매사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계명 안에 거하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든지 무슨 계기가 있으면 우리는 종 종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찮가지로 이제 2023 년은 이미 역사 속으로 다 지나가고, 새 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한번 새로운 각오로 올 해를 시작 해 보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래서 올 해를 다 지내고 년 말이 되어서는 후회가 되지 않는 뜻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난 곳 과,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 전 우상이 흔한 곳에 친척, 가족과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 때의 아브람처럼 주님 앞에서 보기에, 내가 세상 안에서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나의 생각에 옳음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나의 주위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환경 속에, 오늘과 내일이 편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영 영 잘못된 길로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떠나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예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 갈 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 하심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옳은 길,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믿음으로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되신 주님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보시면 그것을 떠나라고 하실만한 그 무엇과 지금 매일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눈높이에 온전히 맞추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인도자,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말기고 참 목자 되신 주님에게 온전히 이끌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말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김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번역 벰후 1:6-10)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강아지가 보름달을 쳐다보고 있듯 그냥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말기고, 나에게 오는 결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와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계명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부터 올 수 있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보여 주시는 그 땅으로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다 알기지 못하면서 잘못 된 결과를 대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약속을 의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믿음으로 살아 갑시다.

전심으로 믿고 또 기도했으면 이제 담담히, 당황치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올 해를 살아가는 시간 시간들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감사와 은혜의 순간 순간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결과이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는 위로함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님 축복을 다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Sharing the Word of God Together

“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Genesis 12:1,2)

As a new year has already begun, I hope and pray that we will experience good health, peace, and, above all, a year where we increasingly rely on the Lord and dwell in His commandments. Whenever circumstances change or there is a significant event, we tend to make new resolutions. Now that 2023 has passed into history, let us make a determined effort to start this new year with a fresh commitment.

May the time spent in this new year not be regretful, but meaningful and intentional. In today's scripture, the Lord spoke to Abram, instructing him to leave his land, birthplace, and his father's house, and go to the land God would show him (Genesis 12:1-2).

This message, given directly by God to Abram, who lived comfortably among relatives and family in an idolatrous place, is a call for us today. It urges us to rise above our habitual comfort and the convenience of our own thoughts, leaving behind anything in our environment that goes against God's commandments. It calls us to follow only the word of the Lord.

Even if we find comfort in our familiar surroundings, live well today and tomorrow, and seem to be prospering, a life not lived according to God's commandments will ultimately lead us down the wrong path forever. We are instructed to leave such environments and go where the Lord leads us. We must live a sensitive life following God's commandments.

To follow the path the Lord has prepared for us, we must live a life of faith with obedience to His commandments. When our Shepherd, the Lord, leads us to quiet waters, we must believe in Him and drink from the water of eternal life.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at is it that we are doing every day that displeases the Lord or things we should abandon when He sees it? I pray that this year will be a time of checking those things one by one and aligning our perspective with the eyes of the Lord.

(2 Peter 1:6-10), and to knowledge, self-control; and to self-control, perseverance; and to perseverance, godliness;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love.

For if you possess these qualities in increasing measure, they will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m, he is nearsighted and blind, and has forgotten that he has been cleansed from his past sins. Therefore, my brothers, be all the more eager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do these things, you will never fall,”

Trusting in the Lord isn't akin to idle observation, like a dog staring at the full moon. It involves giving our best within the boundaries of His teachings and leaving the rest to the Lord, liberating ourselves from worries, anxieties, and concerns about outcomes. This is genuine freedom, following the path the Lord guides us on.

May this year be a time of perfect trust in the Sovereign, the Leader, and our Shepherd. Entrust everything to the Lord, believing that He has prepared the best path for us. May we live this year in complete reliance on the Lord, embracing moments of gratitude and grace like Joseph, Daniel, and Job in the Scripture.

May this be a year of receiving the abundant blessings of the Lord.

I bless you all to have a year filled with those moments regardless of the outcomes, and to fully enjoy the comfort and freedom that the Lord gives us. This is the promise from the Lord:

Genesis 12:2 (NKJV):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shall be a blessing."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은 한 치의 잘 못 뒀음이 없으시다. 처음 조르단과의 서먹 서먹하게 나누던 대화는 조르단이 예전 살았던 마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블락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난 이후에는 금방 오래 전 부터 알고 있었던 동네 이웃처럼 서로의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르고 이어져 나갔다. 그렇게 화기 애애한 이야기가 무르익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 조르단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의 그 사건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망설임과 거기다가 아직도 그 날의 분노가 다 가지지 않고 조금은 남아 있는 듯 어두운 톤의 목소리로 설명을 해 나간다.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너무나 가정을 지키고, 너무나도 지금 두고 온 두 자녀를 보고 싶어 몸부림 치는 그의 마음 속 한켠의 응어리는 어느 새인가 뜨거운 작은 물방울이 되어 내 가슴 한 복판으로 방울 방울 소리 내며 떨어 지고 있었다.

(마 10:28-31)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의 결말이 중범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제 두 달 후면 석방이 된단다. 그러나 아직 그의 마음에는 착실하고 열심히만 살아왔던 나에게 왜 그런 일이 닥쳐 와, 내게 그런 선택을 강요했는지, 놓아버리고 싶은 물음들은 꼬리를 서로 물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가 되어 그의 마음의 한 쪽 벽에 끈질기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조르단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우연이 아닌 그의 인생에 "왜 내게" 라는 그런 물음의 답을 하나님은

나에게 나아오라고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알고 있노라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웬지 교회로 발길이 옮겨지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우리 선교회에서 보내주는 말씀을 통해 조르단의 마음이 열려 가고 있는 중이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중에 목사의 방문을 받게 된다.

이제는 목사의 입을 통해 귀에 들려지는 복음이 낯설지가 않다. 이제 나의 어깨의 짐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나는 보듬고 살아야 하나? 이제 나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앞으로의 다가 올 환경을 맞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굵게 말린 두루마리를 퍼듯 끊임없이 뇌리 앞에 펼쳐지는 물음은 하나님이라는 웅장한 진리 앞에 그 종 종 걸음을 멈춘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장난감을 한아름 가슴에 담은 아이처럼, 조르단이 복음을 잘 받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두 손을 같이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제 헤어져 다시 돌아가는 조르단의 뒷모습이 참 따듯해 보였다. 은혜의 만남을 주선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어제부터 조르단을 방문하기까지는 많은 유혹이 있었다.

오늘 기록적인 폭우가 올 것이라는 뉴스의 호들갑은 빗 속에 운전 더 조심해야지 다짐하며 한쪽 귀로 흘려 보낼 수가 있었다. 유혹은 여기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에게로 옮겨온다.

하루 전 늦게 전달을 받기로, 우리가 형제를 방문하는 같은 날에 선교 헌금 전달 식이 있으니 거기에 꼭 참석하라는 요청이다. 하나님은 선교회 재정 어려움을 아시고, 조금이라도 도와 주시니 조르단 오늘

방문은 포기하라고, 귀에 큰소리로 말씀 하시는 것 같아 이번 방문을 포기할까 궁리를 잠시 이리 저리 해 본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도소로 향하는 길에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머리를 스쳐 지나 갈때, 차 유리에 퍼붓는 빗줄기 속에서 서도 한 가닥 살 짝 모습을 드러낸 햇빛처럼, 아직 한번도 만나지 않은 조르단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원찮은 목사에게도 주님은 은혜 주셔서, 귀한 영혼을 맡기심에 감격해 몸둘 바를 모르는 나의 작은 믿음임을 깨닫게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건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Ykwhwhwhwh

I wholeheartedly recognize the perfection in God's plans and preparations. What started as slightly awkward conversations with Jordan, centered around the divide between his past village and my current home, swiftly evolved into a comforting exchange of stories, reminiscent of longtime neighbors catching up. As our connection deepened, Jordan opened up about the events that brought him here, revealing a subtle hesitancy and a lingering undercurrent of anger from that particular day.

Despite pouring his heart into diligent work, protecting his family, and an intense desire to reunite with the two children he left behind, Jordan's emotions, tucked away in a corner of his heart, somehow resonated within my own chest. Reflecting on Matthew 10:28-31,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apart from the will of your Father.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This Truth brings to light the preciousness of every individual. Even in the face of uncertainties, Jordan's worth is highlighted, echoing the reassurance that he is valued beyond measure.

Thankfully, by the grace of God, the consequences of the incident didn't lead to a severe sentence, and he's anticipated to be released in two months. However, lingering questions about why this event unfolded in his life, and the choices he was compelled to make, persist in his thoughts stubbornly.

To Jordan, who doesn't know God yet, God is making Himself known. In the course of his life, guided by God's plan, a clear invitation prompts him to seek answers. Despite my awareness of this process, God's mysterious ways continue to unfold. As Jordan makes his way to the church, his heart gradually opens to the messages from our Onesimus Ministry.

Gratitude fills me for this unfolding journey. Amidst this, Jordan receives a visit from a pastor, and the gospel is shared where it no longer feels

unfamiliar. I grapple with burdens on my shoulders and wounds in my heart. How can I find comfort and navigate these challenges? What steps can I take in the upcoming circumstances? These persistent questions of his, unraveling like an unwinding scroll, seemingly takes a pause in the majestic truth of God.

Like a child holding onto a handful of toys, Jordan welcomes the gospel with gratitude towards God. With folded hands, we join in prayer. As Jordan leaves, there's a warmth in his departure. I'm thankful to the Lord for orchestrating this encounter of grace.

I faced some momentary temptations yesterday, but through the visit with Jordan, I was able to experience God's desire for moments of grace again. The forecast of heavy rain also helped me remove any mental distractions as I committed to drive carefully. However, another temptation was just around the corner.

I'm asked to attend a missionary offering ceremony on the day before, the same day as my planned visit to see Jordan. Surely God knows about the financial struggles Onesimus Ministry face and needs support with. Thus, attending the ceremony would be a huge help. This makes me question whether I should reconsider the planned visit.

Afterall, visits like to Jordan, can only be possible through financial means from similar offering ceremonies.

As I contemplate, the words from Matthew 6:33 come to mind: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Praises that I have sung countless times pass by my mind,

Even with rain pouring down the car window, the image of Jordan, a stranger, stays with me like a sunbeam through the drops. As a pastor refreshed by the rain, the Lord entrusts me with a believing soul, revealing the importance of my small faith. So, I proceed.

## 부활만이 희망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은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이 났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 죽은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종교이다

부활 후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오백 여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은 회의와 걱정에서 싸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되었다. 겁쟁이가 용감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 졌으며, 포악한 사람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서 살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위하여 살도록 촉구한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로 완성된다. 아직도 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희망이 없다면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희망 없는 시대에 부활만이 희망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의 통치가 희망이다. 버림받고 소외 받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 주셨다. 우리는 부활을 보았는가.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활만이 희망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지금 여기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출처: <https://392766.exbible.net/entry/부활주일-칼럼-부활만이-희망이다> [Pensées:티스토리]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피어 - 사랑이 피어  
땅 끝에서 땅 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4 월의 관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 월과 4 월 사이의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

---

## Testimony

### Dwight – Onesimus School of Theology Student

---

#### He Changed My Name!

Has your name been changed? Jesus says in Revelation 2:17 that those who overcome will have a new name written in the stone. Isaiah 62:2 fortells a new name as well:

“And the Gentiles shall see thy righteousness, and all kings thy glory:

And thou shalt be called by a new name, which the mouth of the LORD Shall name.” (Emphasis mine)

The moment you accept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by faith, you have a new name. You no longer have to answer to the old name. The devil still loves your old name and he throws it up to you all the time. When you are called by those names the devil uses, don't answer. Just tell him that is not you anymore!

Second Corinthians 5:17 says,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Emphasis mine.)

Answer only to the new name, not the old! Here are a few that come to mind:

I'm no longer “lost”, but now am “Found.”

I'm no longer a “sinner”, but now a “Saint.”

I'm no longer “too far gone”, but now “Saved by grace.”

I'm no longer “mine”, but now “Yours Lord.”

I'm no longer “hopeless”, but now “Hopeful.”

I'm no longer “dead”, but now “Alive.”

I'm no longer "a useless rock", but now "A Precious Jewel"

I'm no longer "a slave", but now "Free."

I'm no longer "a tare", but now "Wheat."

I'm no longer "a lowly subject", but now "A Royal Priest."

I'm no longer "poor", but now "Rich."

I'm no longer "an orphan", but now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tranger", but now "A Friend to Jesus."

I'm no longer "hated", but now "Loved."

I'm no longer "forgotten", but now "Remembered."

I'm no longer "without favor", but now "Highly Favored."

I'm no longer "guilty", but now "made Free."

I'm no longer "destitute", but now "Highly Favored."

I don't have to answer to any name the enemy tries to call me. I only answer to Chosen Child of God! That's me! I pray it is you, also!!!

Thank You Jesus! You Changed My Name!!!

By Dwight G. Bowling, SR. 9-7-2023



## -깜방에서 깨달은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

1.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 성경은 66 권으로 된 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성경을 쓰신 것이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의 책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경을 완성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열어서 썸 (열 계) 보이신 示 (보일 시) 책이라 하여 계시라고 한다. 성경은 언어 (言語)가 문자 (文字)가 된 것인데, 신 (神 신)이라는 한자 속에는 말씀 曰 (가로 왈) 통하시는 (丨 통할 신) 그래서 보이신 (示) 분이시며 말씀으로 뜻과 능력을 펼치신 (申 펼 신) 분인 것이다.

2. 모순 矛盾 (창모 + 방패 순) - 생각 해 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모순 덩어리 인 것이다.

창을 든 사람과 방패를 든 두 사람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것이다. 인생은 고해요, 자연 재해로 인해 세상살이는 험한 곡예인 것이다. 이 농의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어느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이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3.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인생의 모순속에 말씀 (曰) 으로 오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길이 없고, 이 세상의 진리는 가짜요,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는 뜻이다.

아~ 생명, 그리하여 목숨이라는 (命 목숨 명) 은 인자 (人)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一) 의 말씀 (口)을 믿는 것 (卍)이다.

4. 만일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흔적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 나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 최대, 최고의 목적입니다.

5. LA 에서 Seoul 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 가려면 하늘에서 내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탑승 (믿음= 거듭남) 해야 한다.

그 분은 하늘에서 내려 오셨거니와 (동정녀 탄생) 부활후 40 일 후에 하늘로 다시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이심을 증거 하셨다. 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은 훗 날 저 영원한 세상(천국)에서 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인생은 연극인데, 연극이 시작하기 전 (천국) 여행 연습 (리허설) 인 것이다. 우리는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배역 된 각자의 배우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

어느 배역이든 상관없다. 문제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 믿는가 차이만 있을 뿐이다.

6. 인생본질(人生 本質)- 사전을 찾아보니 본질이란 (Essence)=(Real)=(True)이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비본질은 (가짜)=(Fake)=(거짓)이다. 인생 살이에도 본질이 있다. 인생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일까? 도대체 인생에 진짜와 가짜 인생이 있는가?

예수그리스도만이 본질(本質)이시다. (진짜 생명) 本(뿌리 본)=(나무의 뿌리)=(다윗 왕의 뿌리)=(예수그리스도)=(계 22:16)

質(질박할 질)=(순수하다)=(죄없음)=(인자)

所(모탕 은) = 통나무를 쪼갤 때 밑에 받치는 받침대.(희생)

具(돈 패)=(지불하다) -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자신의 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 모든 죄의 삯을 지불하신 죄 없으신 분이셨다 (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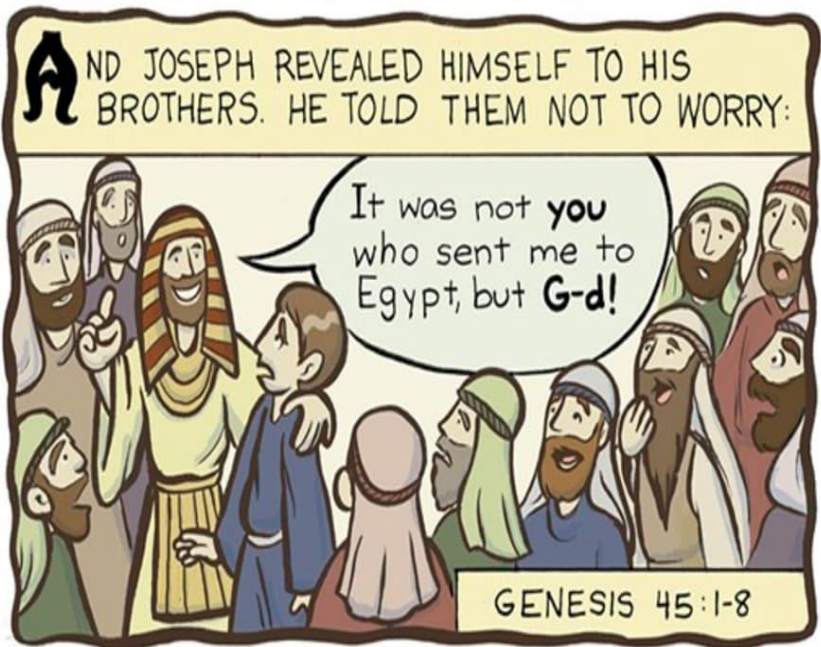
이 분은 생명나무이신 고로 죽었으나 (받침대) 다시 살아 (부활)나서 죽지 않는 나무 (받침대) 이심을 증명하셨다. 하여 본질이라는 한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 되어 있는 것이다.

비본질(가짜인생)에서 본질(진짜 인생)으로 (요 3:16)- 만일 믿지 아니하고 비 본질 인생이 참 인생이라고 “고집” 피운다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전 1:14) “평생을 손으로 바람잡으려는 헛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한편 이 가짜 인생을 하나님은 “죽은 인생” 이다 라고 하신다 (요일 5:12)

그러므로 비본질 인생들은 하루빨리 거짓 혼을 모두 토(吐)해 내야 한다. 가짜 인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Shin 형제가 소식지를 위해 보내 온 글은 아직 많이 있지만 지면과 형편상,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음에 기회 될 때 다시 올릴 것을 알려 드립니다



# 기도 제목

##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한마디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오네시모 선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2. 재소자 방문을 위한 교도소 방문의 먼길 운전이 항상 안전하도록,
3. 갇힌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4.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진정한 오네시모로 변화 되기를,
5. **Korean Community** 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6.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를 섬기는 사역자가 구해지도록,
7.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8. **New Life Ministry** (재소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역자로 변화되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사역)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확장되기를,
9. 한국의 추방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10. 오네시모 선교회 새 비전 “예방 사역”을 위하여
11. 선교회 사역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들을 위해,
12. 오네시모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 평강과 건강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성경과 신앙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가족 관계에 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선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0시 30분)

(재소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회: 금요일 저녁 5시 30분)



**Onesimus Ministry**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9100**

**Email: [onesimusministry94@gmail.com](mailto:onesimusministry94@gmail.com)**

**[www.onesimusministry.org](http://www.onesimusministry.org)**

**[Est. 1994](#)**

**Onesimus New Life Ministry: Korea, Japan, Mexico, Colombia**

**International Humanitarian Exchange Council, CA USA.**

**Rev. Suk Ki Kim Founder**

**Rev. John S. Choi President**